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서현정 수녀입니다. 저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성요셉여자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여고시절에 존경하는 우리 씨튼 수녀님들의 모습과 수도생활의 삶을 보면서 막연한 동경과 함께 수도생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979 년도에 수도회에 입회하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학교인 광주 은혜학교에서 특수교사로, 본원에서 지원자·청원자 양성담당으로 그리고 중국 연길시에 있는 서광의집 장애아동 조기교육센터에서 1998 년부터 2005 년 2 월까지 장애아동들의 치료·재활·교육과 연길시내·외의 특수교육담당자들과 부모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한국 특수교육연수원과 특수교육학과

교수들과 연계하여 연길시의 장애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도직을 수행했으며, 2006 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아동에서 성인, 노인들까지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복지관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삶을 즐기고 있으며, 노인들은 매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의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드시고 계십니다.

매일 이들을 만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창설자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열정도 함께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가까이 매일의 생활안에서 일어나고 있음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역시 가난한 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던 성경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들을 위해 자주 기도합니다. 알콜중독이신 할아버지가 복지관의 급식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과 큰소리로 싸우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험악한 분이 저를 보면 순한 양이 되시는 모습은 은총이라고 생각하지요. 매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할아버지 한 분은 “신부님~ 어디가?”라고 하시고, 저는 “수녀예요. 수녀님~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수정해 드리면, “그래? 수녀야?”하시면서 돌아서서 다시 “그런데 신부님~”이라고 호칭이 절대로 바뀌지 않으시는, 발음이 어눌하신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 직원 중의 한 명은 할아버지가 왜 날마다 신문, 신문 하실까요? 하면서 의아해하곤 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매일 일어나는 복지관에서 우리는 또 행복해하지요. 하느님의 창조물인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총이고, 기적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사도직에서 직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더 씨튼께서 하느님의 섭리안에서 관계적 영성을 사셨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내롭게 그들을 만나고 환대하면서,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그들의 마음에 하느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Hello, Sisters! My name is Sister Seo, Hyun Jeong. I work at Namdong Social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Incheon. I was born and raised in Kangjin, graduated St. Joseph Girls' High School, and began to yearn for religious life once I got to know our Sisters there.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79 and earned a BA in Special Education at Daegu University. After that, I taught disabled students at Eun Hae School for several years. I also worked as a director of affiliates and postulants while living at the provincial House. From 1998 to 2005, I was missioned to China. I taught disabled children living in the

Yanji area by providing education programs and skills for the special education, therapy, and rehabilitation to directors and parents. For this, some professors and Speci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of Korea staff joined us. Since 2006 I have been working at Namdong Social Welfare Center.

The severely disabled children, adults and the elderly come to our center for therapy, to participate in rehabilitation programs, and social events. We are also running a soup kitchen for the elderly. Whenever I meet our clients, I am reminded of the compassion of Jesus for the isolated, sick, and marginalized along with thinking of our founders' spirit and passion. In my daily life, I come to realize that miracles are happening very close to me. Remembering the passages of the Gospel telling of the love of Jesus for the poor, I pray for them. When I see the alcoholic old man, who used to be violent at the soup kitchen, changed to a very kind person through our care and efforts, I realize that God's grace is upon him and us.



Sometimes, funny things happens to me. For example, one day I found out that one of the elderly men always called me as "Father." Whenever he called me Father, I told him that I am a Sister, not a Father. He nodded to show that he came to understand. However, as soon as he goes one step away from me, he calls me Father. He made me laugh and laugh. There is another old man who continuously says "newspaper, newspaper". We don't know why, however, this also brings laughter to brighten our daily work at the center. To see the improvement and progress of the disabled people here is to experience a miracle, I think. My position at the Center enables me to mee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Like Mother Seton who lived relational spirituality in God's Providence, I am trying to cherish all my relationships with others, give hospitality to others with patience, and bring God to their hearts as a Sister of Charity of Seton Hill.

